

“지역에 머물며 성공하는 사다리 놓겠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년간 광주 동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이번 제9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 제2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노진성입니다.

-33살 청년으로 구의원에서 시의원이 됐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시의원이 된 지금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더 큰 규모의 정책과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교통, 경제, 복지 등 시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

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 역할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의원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시의원으로서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년 문제나, 앞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청년 의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년 문제는 일자리와 창업 환경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지고 도, 자금과 공간, 판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청년인소 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

33세 청년 시의원이 그리는 광주·전남 미래는 수도권 유출 막을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

겪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단순한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청년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사업에서 청년기업 우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창업 지원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도전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돌봄 등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정책도 함께 마련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청년정책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우선 추진하고 싶은 청년정책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좋은 일

자리와 창업 기회가 부족해 많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 청년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거와 문화, 복지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청년들이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서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 비전 중 ‘청년 창업·정착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방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청년 창업·정착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기업이 공공사업과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 공간과 투자 연계, 판로 지원을 확대해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주거·문화·복지 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들이 단순히 일할 곳을 찾는 것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에 머물며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청년 창업·정착 생태계의 목표입니다.

-‘체감형 청년정책’을 꾸준히 강조했는데 청년들이 삶의 변화로 체감하기 위해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년정책이 단순히 지원금이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려면 삶의 전 과정에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청년들이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일자리와 창업, 주거, 문화, 복지가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이 삶의 변화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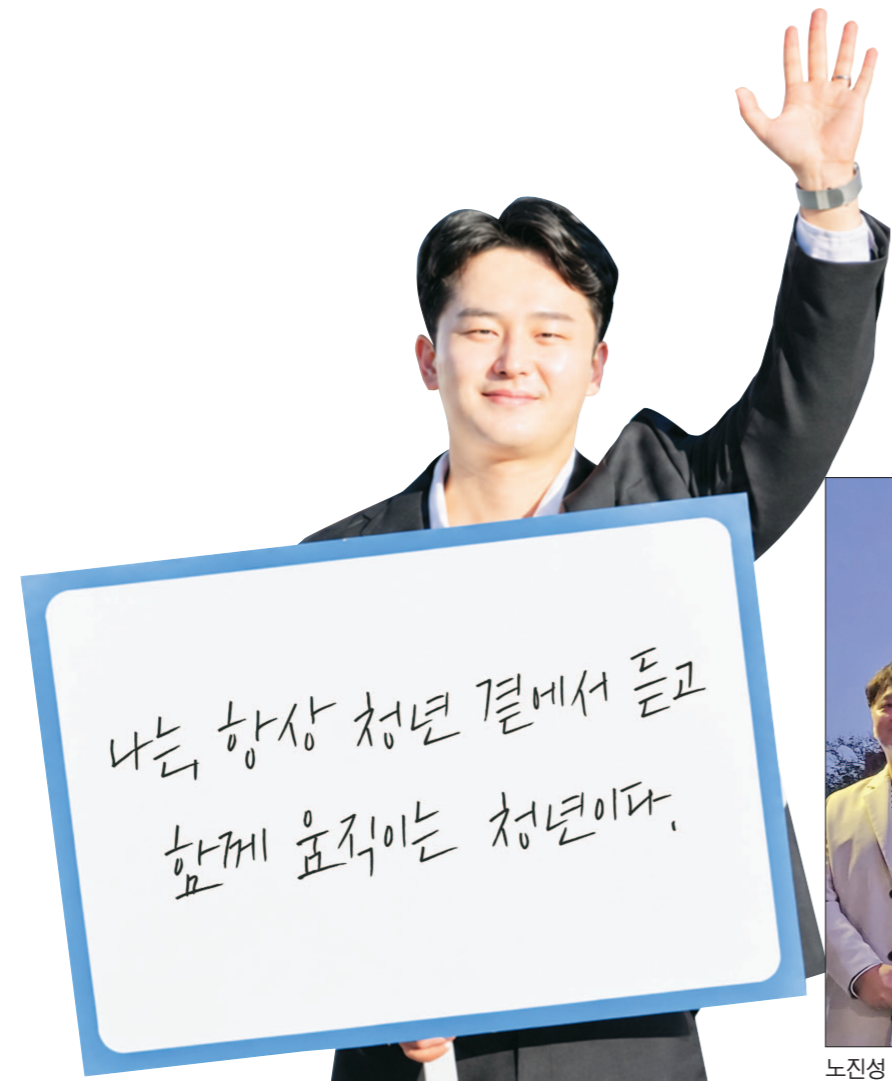
결국 체감형 청년정책의 핵심은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정책이 내 삶을 바꿨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년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불안과 도전이 함께 있는 시간이지만, 그만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역 안에서 충분히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머무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이 결코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듣고,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신승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노진성 의원 활동 모습.



노진성 의원 활동 모습.

제12회 광남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26. 6.29(월) 오전 7시 티업 (샷컨)
해피니스CC (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대회일시** 2026년 6월 29일(월) 오전 07시 티업
- 대회장소** 해피니스CC(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모집인원** 228명(57팀) / 4명 한 팀으로 구성(선착순 팀 구성)
- 참가자격** 만 2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남·여 골퍼
- 경기방식** 18홀 스피리오 방식(샷 컨)
- 시상내용** 1~3위(남·여 통합)
특별상(스피리오 30위, 50위, 70위, 130위, 최하위)(남·여 통합)
출인원상(최대 1억 원, 복수 발생 시 비용 보장 및 시상금 1/N 지급)
- 접수기간** 2026년 5월 29(금)~6월 28일(일)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해피니스C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온라인 접수
- 접수방식** 접수일 기준 익일 24시까지 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 참가금액** 참가비 30,000원(중식, 출인원 보험료 포함) / 입금 확인 시 참가 확정
- 입 장 료** 회원 : 5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비회원 : 11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대회 7일 전 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참가비 전액 반환 불가
- 납부방법** 접수 후 참가비 입금 / 입장료는 현장 결제
광주은행 001-127-012075, 예금주 :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 주최·주관** 광남일보, (사)광남문화체육재단
- 대회진행** 해피니스CC
- 문의** 광남일보 사업본부 (062-370-7090)



참가신청QR

*위 내용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피니스CC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